규칙이 만드는 것들

관심사 심층 독해 - 2026년 10월 26일자 피드 · 2026년 10월 27일 아침

> 어제 19개 피드 중 제외 2개(EerdWord 봇 차단 지속, Leiter Reports 접속 거부 - 새 신호 전까지 재시도 없음)를 뺀 17개가 모두 접속되어, 새 글 15편을 전문 독해하고 11편을 골라 5개 주제로 분석했습니다.

어제의 글들은 규칙이 현실을 어떻게 빚는지를 여러 층위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헌법에 새겨진 지출 래칫은 브라질의 금리를 13.75%로 밀어 올렸고, 투표에 부쳐진 세금 규칙 하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자연실험을 만들었으며, 공로(功勞)라는 신학적 문법이 빠진 자리에서 영성 훈련은 자기 계발이 됩니다. 반대편에서는 한 만화가가 '제약 안에서 일하라'는 창작의 규칙을 40년 경력으로 증언했습니다.

1. 브라질, 헌법에 새겨진 래칫

주말에 브라질 대선 결선이 있었고 룰라가 네 번째(비연속) 임기를 얻었습니다(BBC·AP·블룸버그 확인; 보우소나루는 결과를 거부했다고 AP는 전합니다). 선거 다음 날의 경제 분석 두 편이 우연히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이코노미스트(MR 소개)의 진단: 브라질의 실질 정책금리(기준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뺀 것)는 9% 이상으로, 러시아보다 높고 칠레·필리핀·남아공의 네 배입니다. 그 출발점은 재정 - 6만 5천 단어의 헌법이 공무원 명목임금 삭감을 금지하고 연금·실업급여를 최저임금에 연동해 두었으며,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와 성장률에 따라 자동 인상됩니다. 이 래칫(한 방향으로만 도는 장치) 덕에 법으로 정해진 의무 지출이 연방 예산의 90%에 이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Cafe Hayek 인용)의 수치도 같은 자리를 가리킵니다 - 기준금리(Selic) 13.75%, 올해 물가 5.2% 전망(목표 3%), 성장률은 2%를 밑돌 전망. 이코노미스트의 둘째 고리가 흥미롭습니다 - 저축률이 GDP의 14%로 세계 평균보다 12%포인트 낮은데, 물가가 저축을 갉아먹은 기억과 국가가 의료·교육·연금을 대는 구조가 맞물리면 '지금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 10/25에 본 프랑스(긴축의 배분)와 대조됩니다 - 프랑스가 '자르는 문제'라면 브라질은 '자르지 못하게 설계된 문제'입니다. 룰라 4기의 과제는 이 래칫의 정치입니다.

2. 부유세 3일차 - 투표지 위의 자연실험

캘리포니아 발의안 40(억만장자 일회성 5% 부유세) 논쟁이 계속됩니다(10/24에 WSJ 이주 집계, 10/25에 Saez의 전략적 선택 발언을 다룸). 어제 추가된 세 가지. ①Megan McArdle의 프레임(Cafe Hayek 인용) - 보통의 세제 개편은 효과를 분리하기 어렵지만, 이 안건은 경제학자에게 드문 자연실험이라는 것: 세계 최고 부자들에게 5%를 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미 Peter Thiel과 구글 창업자들의 이주 선언이 있었고, Zucman의 추정은 이주 반영 시 세수 890억 달러, 여기에 '포브스 집계에 안 잡히는 소수 억만장자'를 더해 1,150억 달러 - McArdle의 반문은, 시끄럽게 떠난 사람들만 떠났다고 왜 가정하는가입니다. ② WSJ의 Allysia Finley - 설계자 중 한 명인 Emmanuel Saez가 2020년에는 3천만 달러 이상 0.4% 안을 만들었다가 무산된 전력을 들어, 문턱은 내려

갈 수 있다고 봅니다. ③WSJ 사설 - Zucman 자신이 "일회세는 시작점"이라고 말했고 연 2% 상설 부유세도 제안했다는 인용으로 같은 우려. 세 인용 모두 반(反)부유세 진영의 글이며, Zucman 측의 수치와 발언은 인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쟁점은 어제로 분명해졌습니다 - 수익 추정의 문제(누가 남는가)와 동역학의 문제(문턱은 어디까지 움직이는가).

3. 공로라는 문법이 사라진 자리

Experimental Theology의 연재(개신교 토양에 이식된 영성 훈련의 '이식 충격') 9편은 가톨릭의 공로 신학을 다룹니다. 요점 - 가톨릭교리서(CCC 2008-2010 인용)는 인간의 선행이 은총 안에서 '인정받고 보상받는다'고 말하고(근거로 고린도전서 3장의 불 시험과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구절), 이 문법 안에서 단식·기도·자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는 단순한 동기를 가졌습니다. 개신교가 공로 대신 '전가된 의'(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를 택하면서, 같은 훈련은 정당화 근거를 잃고 '변화의 기술'이 되어야 했고, 그 순간 자기 최적화 문화에 잠식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입니다 - 훈련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나에게 미치는 효과로 정당화될 때. 저자는 어느 쪽이 옳은지가 아니라 토양의 차이를 묻는다는 연재 원칙을 유지합니다. 이 연재는 곧 마지막 편(종합)을 예고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계속 따라온 연재이고, 이번 편은 실천의 '동기 구조'라는 관점에서 일반 독자에게도 읽히는 한 편입니다.

4. 양자보다 작은 관찰자들 - 슈위츠게벨의 사유실험

철학자 Eric Schwitzgebel의 새 글은 의도적으로 무모한 논증입니다. 가정 1 - 우주는 무한하다(물리학자 다수가 취하는 추측, 관측 지평 너머에 '가장자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가정 2 - 무한하다면 큰 스케일에서도 복잡성이 재현된다(아주 크게 확대해 나가다 보면 우리 스케일만큼 복잡한 구조가 나오는 층이 있으리라). 가정 3 - 복잡성이 재현되면 진화와 지성도 재현된다(자연선택은 안정적 복제와 변이가 있으면 스케일 무관하게 작동한다). 가정 4 - 우리가 지성을 품은 최소 스케일이라면 그건 '특별한 위치'라는 뜻이라 코페르니쿠스 원리(우리는 우주에서 특별한 자리에 있지 않다)에 어긋난다. 결론 - 우리 세계 속 양자보다 작은 스케일에도, 우리를 그들의 '미시 입자'로 품은 거대한 스케일에도, 과학과 철학을 하는 관찰자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는 것.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속의 작은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로 닫습니다. 검증 불가능한 가정의 사슬이라는 점을 저자 스스로 아는 유희지만, 논증의 각 관절(우아함 논증, 스케일 불변 진화론, 코페르니쿠스 추론)은 철학의 실제 도구들입니다. 본문 말미에 저자가 암 투병 중임을 짧게 밝히며 이런 사색을 계속하겠다고 쓴 대목이, 유희의 논증에 다른 무게를 줍니다.

5. '제약 안에서 일하라' - Nick Abadzis 인터뷰(하)

만화잡지 The Comics Journal의 긴 인터뷰(『Laika』, 『Hugo Tate』의 작가)는 이 보고서의 만화사 관심사와 정확히 겹칩니다. 세 대목을 뽑습니다. 첫째, 역사 픽션의 규칙 - 『Laika』를 만들며 5년을 조사하고 모스크바까지 간 그는 "실제 사건에 이야기를 끼워 맞추되, 확립된 사실

과 모순되지 마라. 제약을 무시하는 것은 신화지 역사가 아니다. 제약 안에서 일하라. 더 힘들지만 결과가 더 진실해진다"고 말합니다 - 며칠 전 본 '계획서를 거꾸로 읽는 법'(10/24)과 같은 눈입니다. 둘째, 만화의 문법 - 그는 칸 사이 여백(거터)을 '간주곡, 음 사이의 짧은 침묵'이라고 부르며, 만화를 문장의 문법처럼 깊이 이해하는 것과 기술적 화력을 구분합니다("나는 최강의 화가는 아니지만 이야기와 인물로 몰입시키는 법을 안다"). 셋째, 전수(傳授)의 문화 - 1980년대 말 잡지 Deadline에서 Steve Dillon이 그에게 한 조언 "글에 집중하라. 나머지는 따라온다. 너처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가 이후 그가 후배들에게 한 일이 됐고, '의심은 과소평가된 선善'이라는 그의 작가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개인사가 아니라 만화라는 매체의 기술 이야기로 읽힙니다.

짧게 덧붙입니다. ①Marginal Revolution이 창간 23년의 전체 아카이브(글·승인된 댓글·좋아요 집계)를 AI가 읽기 좋은 형태로 공개했고(주간 자동 갱신), 첫 활용으로 'Cowen의 23년간 최고의 책 추천'을 AI가 아카이브에서 뽑아 정리했습니다 -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형용사가 아니라 반복 추천·행동 변화(그 책 때문에 책 40권을 주문했다)를 증거로 쓰고, 댓글 수는 열정이 아니라 주목도라고 명시하며, 『Postwar』처럼 '다른 책의 박한 서평 속 극찬'을 분리해 냅니다. 아카이브 전체가 2차 인용이 아니라 1차로 검증 가능한 자원이 됐습니다. ②미국 선거의 낙관적 데이터(프린스턴 Frances Lee, 이코노미스트 인용) - Bright Line Watch가 2020·2022년 연방의회 선거 884건을 조사한 결과 패자의 승복은 압도다수였고 명시적 거부는 크게 진 초보 후보에 몰렸으며 2022년에 줄었다고 합니다(연구 실재 확인). 투표 대기 30분 초과 비율도 두 선거 모두 2020년보다 낮았고 인종 간 격차는 좁혀졌습니다. ③Jesus Memoirs가 기독교 외경 데이터베이스 e-Clavis에 '히브리인의 복음서' '나사렛인의 복음서' 항목을 새로 썼다는 소식 - 세 복음서 가설 논쟁의 자료 지도. ④Scott Aaronson은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언론 질의에 답한 글에서, 자유민주적 비전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희망을 말하며 정치 글의 댓글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⑤9월 미국 실질 가구소득 중간값이 8월의 후퇴 신호를 끝내고 +0.17% 회복했다는 Motio Research 수치(Econbrowser 인용).

독해의 범위를 밝힙니다. EerdWord(봇 차단)와 Leiter Reports(429→403, 새 신호 전까지 재시도 없음)는 정해진 방침대로 수집에서 제외했습니다. 본문 확인은 접속된 17개 피드의 새 글 15편 전문입니다. 외부 링크 중 추가 확인한 것은 룰라 4선 당선 보도(BBC·AP·블룸버그)와 Bright Line Watch 연구 페이지입니다. 브라질 수치는 이코노미스트·WSJ 인용, 부유세 추정과 Zucman 발언은 반대 진영 글에 실린 인용(2차 인용), 밝기 관측·대기 시간은 연구진의 집계이며 각 원문 전체 재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Marginal Revolution은 피드 본문 기준의 조건부 출처입니다.

반드시 읽을 링크

1. MR, 브라질 경제 문제 요약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0/brazils-economic-problems-in-a-nutshell.html

2. Cafe Hayek, 부유세 논쟁 外 - https://cafehayek.com/2026/10/some-links-3217.html
3. Experimental Theology, 이식 충격 9편 - http://experimentaltheology.blogspot.com/2026/10/transplant-shock-and-spiritual_0862203793.html
4. TCJ, Nick Abadzis 인터뷰(하) - https://www.tcj.com/deadline-hugo-tate-and-sober-dogs-an-interview-with-nick-abadzis-part-2/